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호 【루계 제23340호】주체100(2011)년 1월 23일(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봉해동지, 김명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인 문경덕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만수대창작사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번영의 한길을 걸어온 만수대창작사는 우리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이다.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시기 로동당시대의 기상을 반영한 우수한 미술작품들을 수없이 창작하여 미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특히 금수산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며 천리마동상, 삼지연대기념비,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작사의 구내에서 새로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보신 다음 공훈조각창작단을 비롯한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미술창작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각창작단에서 새롭게 창작한 위대한 수령님의 대리석상들을 보시고 회색의 위인인사 어버이수령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최상의 수준에서 형상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어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이 창작한 조선화, 유화, 조각, 금속공예를 비롯한 작품들을 일일이 보여주셨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강성대국 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우리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하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선화 《주체철완성을 위해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희천의 숨결》을 비롯한 조선화작품들을 감상하시고 모든 작품들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발전하여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술형식인 조선화의 기법에 맞게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하게 형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이 조선화뿐 아니라 유화 《장자강의 저녁》, 《동해의 아침》, 《김장철》, 콘체화 《황해체철소 1강철직장에서》

를 비롯한 여러가지 작품들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장려하는 미술형식에 담아 주제와 사상적내용을 우리의것으로 하면서도 우리 인민의 기호와 감정에 맞게 훌륭히 형상하였다고 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에서 기록되고있는 자랑스런 성과는 참된 미술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옮겨 반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교양수단으로 되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미술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다른 단위들의 창작가들이 그린 특색있는 작품들을 보시고 미술창작은

오늘 전문가들뿐 아니라 군대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그 과정에 우수한 작품들이 수없이 나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풍만한 화원은 뛰어난 미의식을 지닌 우리 인민의 풍부한 문화정서적소양이 낳은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만수대창작사에서 창작한 미술작품들은 국보적가치가 있는 귀중한 재보물인 것만큼 전시를 잘하여 우리 인민들이 언제나 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체로 훌륭히 건설한 문화회관과 드넓은 구역에 웅장 화려하게 일떠선 창작기지들을 돌아보시고 만수대창작사가 골지의 미술창작기지로 전변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

을 표시하시면서 만수대창작사와 같은 세계적인 대창작기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창작사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꾸린데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에 무한히 충직한 창작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기간 창작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국보적의의를 가지는 조선화, 조각, 수예품, 공예품을 비롯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미술사에 특기할 공적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인 미술작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교양과 정서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주체미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옮겨 반영한 참다운 미술은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인 하나이다.

오늘의 시대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있는 혁명적대고조의 시대이며 여기서 미술가들의 임무가 매우 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들은 우리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여러가지 종류와 형태의 미술을 적극 발전시키며 사상예술성이 높고 특색있는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미술창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조선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므로 조선화를 그 특성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술형식이며 독특한 기법으로 그려지는 조선화는 힘있고 아름답고 고상한것이 그 특징이므로 조선화를 그 고유한 기법과 특성을 잘 살려 그리는데 특별한 힘을 넣어야 한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유화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장려하는 미술형식의 하나이고 우리의 미술을 세계적판도에서 발전시키자면 인류의 유산인 유화를 발전시키는데도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창작사에서는 조선화, 유화와 함께 보석화, 서예, 수예, 도자공예, 금속공예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미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창작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은 우리 당의 미술사상과

미술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실은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하시면서 창작가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작품의 종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높은 예술적기량으로 시대적미감이 나게 잘 형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품은 열정과 사색의 산물인것만큼 창작가들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고 열정적으로 탐구하여야 하며 작품창작에 자기의 온갖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국보적인 작품, 세계적인 명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이 당의 문예전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시대정신을 잘 반영한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도도를 마치신 후 만수대창작사 종업원들과 함께 창작사예술조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예술조원들은 공연무대에 녀성중창 《전선천리 야전차 달리네》, 녀성2중창 《강선의 노을》, 시이 이야기 《우리의 신념》,

혼성2중창 《장군님과 함께라면》, 촌극 《어머니가 사온 그림》, 기악과 노래 《곧바로》, 선동이 이야기 《우리는 총창을 더욱 굳게 잡으리》, 시와 합창 《대를 이어 총성을 다하렵니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사가 걸어난 자랑스런 로정과 주체미술의 대화원을 펼쳐가는 주인공들로 자라난 자기들의 행복과 긍지를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창작사종업원들의 전투적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 예술

조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게 반영한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만수대창작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창작사를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로 튼튼히 꾸려주시어 주체미술의 개화발전에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신 어버이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라의 예술발전에 적극 기여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 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고 김병무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2일 교인의 명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후보원사, 교수, 박사인 김형직군대학 학장 김병무동지의 서거에 깊은

분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인터넷홈페이지가 16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라오스 통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남포유리 병공장과 새해전투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평안북도내 공장들을 찾으시고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

로 료해하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고무해주시였으며 공장들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란신문 《이란 뉴스》도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만마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

안북도의 압록강계기종합공장, 수봉메아리공장, 압록강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체코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조조선련합회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CNC화를 높이는 수준에서 실현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 올해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고무추동

각지의 대학, 전문학교 학생청년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사회정치활동 진행

올해공동사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각지의 대학, 전문학교 학생청년들이 겨울철방학기간을 리용하여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가 사회정치활동을 활발히 벌임으로써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생들이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면 대중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선전하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당정책의 정당성도 깊이 체득할수 있습니다.>

올해공동사실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각지의 대학, 전문학교 학생청년들이 사회정치활동에 참가하였다. 경공업과 농업, 석탄, 전력, 금속공업부문에 달려나간 학생청년들의 사회정치활동은 첫시작부터 활기있게 벌어졌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평양시의 10여개 대학, 전문학교 2만여명의 학생청년들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달려나가 1100여t의 물품을 운반하였으며 연재 및 토랑치리와 도랑파기를 비롯한 지대정리작업을 진행하고 12종에 수백점의 지원물자들을 넘겨주었다. 한편 평양시와 평안북도의 학생청년들은 평양포산공장, 평양방직공장, 신의주신발공장 등에 달려나

가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을 벌이면서 수많은 물품운반작업을 붙이면서 나게 해제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에 나간 함경북도와 황해북도의 학생청년들도 연재치리와 파철운반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생활필수품들과 식료품들을 지원하였다. 김계원해주농업대학, 해주의학전문학교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대학, 전문학교 학생청년들은 신천군 새남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협동농장들에 수백t의 질 좋은 거름을 보내주었으며 농사에 필요한 여러종에 450여점의 영농기구들을 마련하여 새해 첫 전투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를 더욱 북돋아주

었다. 자강도의 10개 대학, 전문학교 160여명의 청년동맹일군들과 학생청년기동선동대원들은 최전방전소건설장을 찾아가 연 8차에 걸쳐 군인건설자들을 대상으로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100여명의 비러치리작업을 진행하고 6800여점의 원호물자들을 넘겨주면서 군인건설자들의 혁신적성과를 축하해주고 일손을 도와주었다. 올해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는 학생청년들의 사회정치활동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65돐을 계기로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김 옥 별

# 박정순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는 불가사의 병(폐암)으로 주제 100(2011)년 1월 22일 1시에 82살을 일기로 예석하게 서거하였다.

박정순동지는 당과 수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주제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빈민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과 멸시속에서 살아오던 박정순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성장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박정순동지는 미래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손에 무기를 잡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사회주의건설시기 당중앙위원회와 지방당조직에서 여러 직책들을 역임하면서 우리 당을 강화하고 당원들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박정순동지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0 (2011) 년 1월 22일

## 박정순동지의 력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박정순동지는 주제 17(1928)년 7월 1일 평안남도 평원군 빈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박정순동지는 조국이 해방된 후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나 당중앙위원회와 지방당의 중요직책들에서 오래동안 사임하였다.

박정순동지는 주제 51(1962)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지도원, 과장, 부부장으로, 주제 64(1975)년부터 평양시당위원회 조직비서로, 주제 75(1986)년부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주제 99(2010)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사임하면서 당과 혁명대오의 강화발전과 주제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박정순동지는 주제 99(2010)년부터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사임하였다.

박정순동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특출한 공적으로 하여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과 국가훈장 제1급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

박정순동지는 주제 100(2011)년 1월 22일 불치의 병으로 서거하였다.

박정순동지는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당의 선군명도에 무한히 충실하였다.

박정순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제혁명위업에 바친 그의 투쟁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7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남조선당국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일본군국주의제국의 침략을 강화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7호를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일본군국주의제국의 침략을 강화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7호를 발표하였다.

##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의지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 지지

로씨야정당,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로씨야정당 및 통일당 집행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조고부동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동종의 제의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절하면서 오 백년속적과의 공모적합하여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는 남조선당국의 사대매국행위는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과 내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내외 여론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불행과 재앙의 화근인 일본과의 군사적결탁행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된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대제안을 지지없이 받아들이고 대화와 협상에 속히 나서야 한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지지하여 영구중립화기구조약과 영구중립화조약이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핀란드공산주의자동맹은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이 조선반도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평화호적이며 애국애족적인 통일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김정일총비서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바라면서 이번 중대제안이 반드시 실현되리라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지지하여 영구중립화기구조약과 영구중립화조약이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은

련합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현실적이며 획기적인 방안을 천명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난해 남조선당국의 도발과 위협, 비방중상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이러한 결단을 내린것은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평화호적인 정책의 발전이다.

이 제안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사와 념원을 충분히 반영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유훈대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일련적바와 같이 얼마전 서우에서 진행된 남조선일본군방장관회담에서는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을 떠벌려 군사적공조를 강화할데 대하여 모의하고있으며 특히 남조선피해국과 일본 「자위대」사이의 군사정보교환과 군수물자의 수송,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군수물자제공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일본군국주의제국의 침략을 강화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7호를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일본군국주의제국의 침략을 강화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7호를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일본군국주의제국의 침략을 강화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7호를 발표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일본군국주의제국의 침략을 강화하여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을 다그치고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1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97호를 발표하였다.

## 호금도 주식 미국을 방문

【베이징 1월 21일 발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호금도주식이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그는 미국대통령 바락 오바마와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미국부통령과 미 국무장관 등 고위직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수뇌자회담에서는 쌍무관계

문제가 토의되었으며 조선반도정세 등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체류기간 호금도주식은 시카고시를 돌아보았다.

두 나라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의 쌍무적문제와 기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관한 중미공동성명이 19일에 발표되었다.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성명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북남관계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남대화를 호소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리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장하였다.

## 의연히 심각한 식량안전문제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

세계각국에서 식량가격의 폭등은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식량을 비롯한 주요식품가격의 폭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사회적불안을 가중할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있다.